

# 桑螵蛸는 무엇인가? (藥名, 異名, 採集, 修治에 관하여)

박명재<sup>1</sup> · 서영배<sup>2</sup> \*

## What is the Mantidis Oothea?

Park myung jae<sup>1</sup> · Seo Young Bae<sup>2</sup> \*

<sup>1</sup>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sup>2</sup>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Since the Korean pronunciation of the Mantidis Oothea(桑螵蛸) is not unified, it is necessary to unify pronunciation of this particular herb. According to ancient herbal literature, genuine Mantidis Oothea has been regarded as the product which is attached to mulberry tree. However, all forms of Mantidis Oothea need to be used as a medicinal ingredient.

**Methods** : The current study explores pronunciations of the herbal medicinal names, Collection, and the herbal processes of the Mantidis Oothea. There are approximately about 30 herbal manuals dealing with the Mantidis Oothea after Shen Nong's herbal manual(神農本草經) was published.

**Results & Conclusions** : 1. Sangbicho(桑螵蛸), Sangpyeoyo(桑螵條), Sangpyeoyocho(桑螵蛸), and other names have been used as a name of medicinal ingredient for the Mantidis Oothea.

2. The Other names of medicinal ingredient for the Mantidis Oothea were Sik woo(蝕朮), Danglangja(螳螂子), Danglangjan(螳螂卵), Danglangso(螳螂巢), Danglangwa(螳螂窩), Danglanggag(螳螂殼), etc..

3. The name of medicinal ingredient for the Mantidis Oothea should not be pronounced as Sangpyoso but Sangpyocho.

4. The name of medicinal ingredient for the Mantidis Oothea was originated from a type of the egg case, eating habit, therapy of the Mantidis Oothea and so on.

5. Collecting real thing of The Mantidis Oothea does not really matter whether it is attached to the mulberry tree or not.

6. The herbal processes of the Mantidis Oothea is to kill the eggs, so typical methods were to steam, roast, boil with vinegar and so on. In addition, the main effect seemed to be protection from the diarrhea.

**Key Words** : Mantidis Oothea, Sangpyeoyocho, name of medicinal ingredient for the Mantidis Oothea.

## I. 緒 論

桑螵蛸는 사마귀과(螳螂科)에 속한 곤충인 사마귀의 卵鞘를 건조한 것으로 사마귀의 종류에

따라 桑螵蛸는 사마귀 알집인 團螵蛸, 좀 사마귀 알집인 長螵蛸, 넓은 배사마귀 알집인 黑螵蛸 등의 종류로 분류되어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sup>1)</sup>.

桑螵蛸는 《神農本草經》<sup>2)</sup>에 桑螵蛸라 기재된 이후 《吳普本草》<sup>3)</sup>에서는 桑螵條라 하였으나 이후 문헌에는 대부분 桑螵蛸라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 桑螵蛸라 한다.

桑螵蛸의 讀音은 “蛸”의 音을 “소”와 “초”의 두 가지 音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 교신저자 : 서영배,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분초학교실  
E-mail : genin@dju.kr · Tel : 042-280-2625  
투고일 : 2016년07월11일 수정일 : 2016년07월18일  
게재일 : 2016년08월01일

표 1. 文獻名

文獻名				備考
1. 神農本草經 <sup>2)</sup>	9. 證類本草 <sup>12)</sup>	17. 本草備要 <sup>20)</sup>	25. 本草分經 <sup>28)</sup>	
2. 吳普本草 <sup>3)</sup>	10. 紹興本草校注 <sup>13)</sup>	18. 本經逢原 <sup>21)</sup>	26. 全國中草藥滙編 <sup>29)</sup>	
3. 雷公炮炙論 <sup>6)</sup>	11. 本草品彙精要 <sup>14)</sup>	19. 本草詩箋 <sup>22)</sup>	27. 用藥心得十講 <sup>30)</sup>	
4. 名醫別錄 <sup>7)</sup>	12. 本草蒙筌 <sup>15)</sup>	20. 玉楸藥解 <sup>23)</sup>	28. 中醫要藥分類 <sup>31)</sup>	
5. 本草經集注 <sup>8)</sup>	13. 醫學入門 <sup>16)</sup>	21. 本草從新 <sup>24)</sup>	29. 用藥珍珠囊 <sup>32)</sup>	
6. 新修本草 <sup>9)</sup>	14. 本草綱目 <sup>17)</sup>	22. 得配本草 <sup>25)</sup>	30. 中藥學 <sup>33)</sup>	
7. 開寶本草 <sup>10)</sup>	15. 本草原始 <sup>18)</sup>	23. 本草崇原 <sup>26)</sup>	31. 中國藥材學 <sup>34)</sup>	
8. 本草衍義 <sup>11)</sup>	16. 本草正 <sup>19)</sup>	24. 本草求真 <sup>27)</sup>	32. 中華本草 <sup>35)</sup>	

현재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sup>4)</sup>에는 “상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약재 감별도감>><sup>5)</sup>에는 “상표소”로 기록되어 있어 일원화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桑螵蛸의 採集내용 중 <<神農本草經>><sup>2)</sup>에 “得桑皮之津氣”의 내용과 관련하여 桑皮의 津氣를 得함의 내용에서 부착된 桑螵蛸가 실질적으로 진기를 얻으며 알집에 있는 蟲卵에게 營養이 供給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고 단지 附着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桑螵蛸의 讀音을 일원화하여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桑螵蛸의 부착장소에 따른 성분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성에 자료 고찰을 하여 보았으나 연구 보고된 내용이 없었다.

그러하여 <<神農本草經>><sup>2)</sup> 이후에 간행된 제 문헌을 참고하여 藥名과 異名, 採集, 修治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및 考察

### 1. 研究方法

본 연구에 인용된 서적은 桑螵蛸가 기재된 <<神農本草經>><sup>2)</sup> 이후에 간행된 제 문헌을 참고하여 藥名과 異名, 採集, 修治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표 1).

### 2. 藥名과 異名

#### 1) 藥名

桑螵蛸는 <<神農本草經>><sup>2)</sup>에 桑螵蛸라 기재된 이후 <<吳普本草>><sup>3)</sup>에서는 桑蛸條라 하였으나 이후 문헌에는 대부분 桑螵蛸라 기재되어 있었다(표 2).

『螳螂桑螵蛸』<sup>①</sup>라는 藥名은 <<本草綱目>><sup>17)</sup>에 기재되어 있는데 『螳螂桑螵蛸』<sup>①</sup> 條文에서 [釋名]과 [集解]을 열거한 후, 『螳螂』과 『桑螵蛸』 항목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本草綱目>><sup>17)</sup>에서도 桑螵蛸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桑螵蛸의 藥名은 “桑螵蛸”라 기재된 이래 桑蛸條, 桑螵蛸라 불려왔으며 대부분 桑螵蛸라 기록하고 있었다.

#### 2) 異名

桑螵蛸의 異名은 <<神農本草經>><sup>2)</sup>에 蝕臄라 기재되어 있었고 <<吳普本草>><sup>3)</sup>에는 蝕臄외에 害焦, 致<sup>②</sup>라고 추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本草綱目>><sup>17)</sup> 이전 文獻에는 대부분 “蝕臄”라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마귀 알과 알집을 의미하여 <<本草備要>><sup>20)</sup>와 <<本草從新>><sup>24)</sup> 내용에는 螳螂卵으로 <<本經逢原>><sup>21)</sup>와 <<本草求真>><sup>27)</sup>에는 螳螂子로 <<全國中草藥滙編>><sup>29)</sup>에는 螳螂巢, 螳螂子, 刀螂子, 螳螂蛋, 流扇狗 등의 異名

①) 本草綱目에서는 ‘螳螂桑螵蛸’條文 아래에 [釋名]과 [集解]를 열거한 후 ‘螳螂’과 ‘桑螵蛸’의 主治를 따로 기재하고 있음.

②) 致神의 誤記로 보임.

표 2. 桑螵蛸의 藥名

文獻名	藥名	文獻名	藥名	文獻名	藥名
1.神農本草經 <sup>2)</sup>	桑螵蛸	11.本草蒙筌 <sup>15)</sup>	桑螵蛸	21.得配本草 <sup>25)</sup>	桑螵蛸
2.吳普本草 <sup>3)</sup>	桑蛸條	12.醫學入門 <sup>16)</sup>	桑螵蛸	22.本草崇原 <sup>26)</sup>	桑螵蛸
3.雷公炮炙論 <sup>6)</sup>	桑螵蛸	13.本草綱目 <sup>17)</sup>	桑螵蛸	23.本草求真 <sup>27)</sup>	桑螵蛸
4.名醫別錄 <sup>7)</sup>	桑螵蛸	14.本草原始 <sup>18)</sup>	桑螵蛸, 螳螂 桑螵蛸 <sup>①</sup>	24.本草分經 <sup>28)</sup>	桑螵蛸
5.本草經集注 <sup>8)</sup>	桑螵蛸	15.本草正 <sup>19)</sup>	桑螵蛸	25.全國中草藥匯編 <sup>29)</sup>	桑螵蛸
6.新修本草 <sup>9)</sup>	桑螵蛸	16.本草備要 <sup>20)</sup>	桑螵蛸	26.用藥心得十講 <sup>30)</sup>	桑螵蛸
7.開寶本草 <sup>10)</sup>	桑螵蛸	17.本經逢原 <sup>21)</sup>	桑螵蛸		桑螵蛸
8.本草衍義 <sup>11)</sup>	桑螵蛸	18.本草詩箋 <sup>22)</sup>	桑螵蛸	27.用藥珍珠囊 <sup>32)</sup>	桑螵蛸
9.證類本草 <sup>12)</sup>	桑螵蛸	19.玉楸藥解 <sup>23)</sup>	桑螵蛸	28.中藥學 <sup>33)</sup>	桑螵蛸
10.紹興本草校注 <sup>13)</sup>	桑螵蛸	20.本草從新 <sup>24)</sup>	桑螵蛸	29.中華本草 <sup>35)</sup>	桑螵蛸

표 3. 桑螵蛸의 異名

文獻名	異名	文獻名	異名
1.神農本草經 <sup>2)</sup>	蝕臄	9.本草品彙精要 <sup>14)</sup>	蝕臄, 螳蟻, 螳螂子, 螳蟻, 螵蛸
2.吳普本草 <sup>3)</sup>	蝕臄, 害焦, 致 <sup>②</sup>	10.本草備要 <sup>20)</sup>	螳螂卵
3.名醫別錄 <sup>7)</sup>	螳螂子	11.本經逢原 <sup>21)</sup>	螳螂子
4.本草經集注 <sup>8)</sup>	蝕臄	12.本草從新 <sup>24)</sup>	螳螂卵
5.新修本草 <sup>9)</sup>	蝕臄	13.本草崇原 <sup>26)</sup>	螵蛸, 螳螂子
6.開寶本草 <sup>10)</sup>	蝕臄	14.本草求真 <sup>27)</sup>	螳螂子
7.證類本草 <sup>12)</sup>	蝕臄	15.全國中草藥匯編 <sup>29)</sup>	螳螂巢, 螳螂子, 刀螂子, 螳螂蛋, 流尿狗
8.紹興本草校注 <sup>13)</sup>	蝕臄	16.中國藥材學 <sup>34)</sup>	桑蛸, 螳螂子, 螳螂窩, 螳螂蛋, 螳螂殼.

이 기록되어 있었다(표 3).

따라서 桑螵蛸의 異名은 “蝕臄”라 기재된 이후 害焦, 致神, 그리고 사마귀의 알을 의미한 螳螂卵, 螳螂子, 螳螂蛋의 異名과 사마귀의 알집을 표현하여 螳螂巢, 螳螂窩, 螳螂殼 등의 異명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桑螵蛸의 藥名은 《神農本草經》<sup>2)</sup>에 桑螵蛸라 기재된 이후 《吳普本草》<sup>3)</sup>에서는 桑蛸條라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桑螵蛸의 藥名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桑螵蛸의 異名은 《神農本草經》<sup>2)</sup>에 蝕臄라 기재된 후 《吳普本草》<sup>3)</sup>에 害焦, 致神 그리고 그 이후 문헌에서 사마귀 알과 알집을 표현하여 기록된 異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藥名과 異名の 발음

桑螵蛸의 讀音관련 “蛸”의 音에 대하여 《本草綱目》<sup>17)</sup>과 《證類本草》<sup>12)</sup>의 문헌 내용을 비교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本草綱目》<sup>17)</sup>에 “其子房名螵蛸音飄綯”라 하여 螵蛸의 音을 飄綯라 하였고, 螵蛸의 讀音에서도 “蟻”의 음을 焦(초)로 讀音토록 하였다. 《證類本草》<sup>12)</sup>에서는 “其子螵(音裊)蛸(音蕭)”라 하여 螵蛸의 音을 裊蕭라 讀音하였다(표 4).

즉 桑螵蛸의 讀音을 《本草綱目》<sup>17)</sup>에서는 桑螵蛸 讀音관련 “蛸”의 音을 “綯(초)”라 하였고 《證類本草》<sup>12)</sup>에서는 “蛸”의 音을 “蕭(소)”라 기록하였다.

표 4. 藥名과 異名 의 독음 문헌 내용

文獻名	讀音관련 문헌 내용	備考
證類本草 <sup>12)</sup>	蝕朮(音尤) 又云 : 不過, 蟪(丁郎切)蟪(息詳切)蟪蟪螳螂別名也. 其子蟪(音裨)蛸(音蕭), 一名蟪(音莫切)蟪(音焦)	
紹興本草校注 <sup>13)</sup>	蝕朮(音尤).	
本草綱目 <sup>17)</sup>	蝕朮音尤. 其子房名蟪蛸音飄綯. 蟪蛸音皮 蟪蟪音燻焦. 其子房名蟪蛸者. 其狀輕飄如綯也.	

그러하여 讀音의 구체적인 기록내용을 살펴보면 《本草綱目》<sup>17)</sup>에서 특별히 桑蟪蛸의 “蛸”를 “초”라 讀音하기 위하여 飄綯로 讀音하도록 기록되어 있었고, 蟪蟪의 독음에서도 “蟪”의 음을 焦(초)로 讀音토록 제시하였으며, 또한 桑蟪蛸를 “其狀輕飄如綯也”라 하여 桑蟪蛸의 형상을 표현한 기록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綯”의 의미는 生絲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마귀의 알집인 桑蟪蛸의 형상을 생각하여 볼 때 生絲로 만들어진 것과 닮은 것으로 생각하고 형상적으로 해석하여 “綯(초)”라고 讀音해야 하는 연관성을 알아볼 수도 있었다.

한편 《證類本草》<sup>12)</sup>에서는 “蛸”의 음을 “蕭(소)”라 讀音하였으며 《中華本草》<sup>35)</sup>에서 영문 표기로는 Sangpiaoxiao로, 《韓醫學大辭典》<sup>36)</sup>에서도 “蛸”의 음을 “소”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藥名과 異名의 讀音을 살펴본 것과 같이 두 문헌에서 “蛸”의 음을 두 가지 형태의 다른 讀音을 말해주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문헌에서도 桑蟪蛸의 讀音에서 “蛸”의 음을 “소”와 “초”의 두 가지 음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약전의 한약(생약) 규격집』<sup>4)</sup>에는 “상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약재 감별도감》<sup>5)</sup>에는 “상표소”로 기록되어 있어 일원화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하여 桑蟪蛸의 일원화된 讀音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한의계에서 “상표초”로 사용하고 있고 《本草綱目》<sup>17)</sup>에서도 “상표초”로 讀音할 수 있도록 제시한바 사전적인 의미에 근거한 명칭의 결정보다는 本草書인 《本草綱目》

<sup>17)</sup>에 근거를 두고 讀音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어 桑蟪蛸에서의 “蛸”는 “초”로 讀音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4) 藥名과 異名 의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桑蟪蛸의 藥名은 《神農本草經》<sup>2)</sup>에 桑蟪蛸 《吳普本草》<sup>3)</sup>에서는 桑蛸條 그 이후 桑蟪蛸로 명칭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桑蟪蛸에서 “蟪”와 “蛸”가 모두 사마귀 알을 의미하며 桑蛸條에서도 “蛸”는 사마귀 알을 “條”는 나뭇가지를 의미하고, 桑蟪蛸에서 “蟪” 또한 사마귀 알 또는 알집을 의미함으로 桑(뽕나무) 가지에 부착된 사마귀 알집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本草綱目》<sup>17)</sup>에서는 蟪蛸의 의미를 “其狀輕飄如綯也”라 하여 그 형상이 輕飄 하고 綯와 같다 하였다.

桑蟪蛸의 異名은 《本草綱目》<sup>17)</sup> 이전 문헌에는 대부분 蝕朮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인체의 사마귀를 먹는다는 하여 붙여진 異名으로 《本草綱目》<sup>17)</sup>에 “時珍曰, 燕趙之間, 謂之蝕朮, 朮即疣子小肉贅也, 今人病朮者, 往往捕此食之, 其來有自矣”라 하여 “蝕朮”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蟪蟪, 致神 등의 異名은 “村人每炙焦飼小兒. 云止夜尿. 則蟪蟪致神之名蓋取諸此”라 하여 小兒의 夜尿에 쓰면서 取하여진 異名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마귀 알을 의미하는 異名으로 蟪蟪卵, 蟪蟪子, 刀蟪子, 蟪蟪蛋 등이 있었으며 그리고 사마귀 알집을 의미하는 異名으로서 사마귀의 알집, 껍질 등을 표현하여 蟪蟪巢, 蟪蟪窩,

螳螂殼 등의 異名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桑蠹蛸의 藥名인 桑蟬蛸, 桑蛸條 등은 모두 사마귀 알 또는 알집을 의미하고 綃는 生絲를 의미하여 견사와 같은 형상을 뜻하는 것으로 桑蠹蛸는 桑(뽕나무) 가지에 부착된 생사의 형상을 한 사마귀 알집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고 異名은 사마귀의 식성과 주치로서 사용된 용도에서 유래하여 뜻을 가진 異名 그리고 형상에 따른 의미를 함유한 異名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3. 採 集

桑蠹蛸의 採集에 대하여 문헌 별 내용을 살펴 보면 《神農本草經》<sup>2)</sup>에 “生桑枝上采蒸之”라 하여 살아있는 뽕나무에 부착된 桑蠹蛸의 採集의 내용으로 살아있는 뽕나무에 부착된 桑蠹蛸 採集를 기록하였으며 이외에 《雷公炮炙論》<sup>6)</sup>에는 “須桑樹東畔枝上者”라 하여 동쪽 방향의 뽕나무 중에서 동쪽 가지에 부착된 것을 사용하라 하였고 《本草經集注》<sup>8)</sup>에는 처음으로 채집 시기에 대하여 “生桑枝上, 螳螂子也, 二月, 三月採蒸之”라 하여 二月, 三月에 採集한다 하였는데 《本草衍義》<sup>11)</sup>에는 “自採者眞, 市中所售者, 恐不得盡皆桑上者”라 하여 자신이 직접 채집한 것을 眞品으로 한 내용의 기록이 있었다(표 5).

桑蠹蛸의 문헌상 眞品으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특히 弘景은 “弘景曰, 螳螂俗名石娘. 逢樹便産. 以桑上者爲好. 是兼得桑皮之津氣也. 惟連枝

斷取者爲眞. 僞者亦以膠着桑枝之上也”라 하여 螳螂의 알집인 桑蠹蛸는 桑枝에 부착되어진 알집이 좋은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뽕나무 樹皮의 津氣를 兼하여 득함”이라 하여 桑枝의 藥效 成分을 吸着 含有한 桑蠹蛸를 좋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得桑皮之津氣”의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寄生植物인 桑寄生이나 槲寄生이라면 宿主植物에 부착되어 宿主植物의 營養을 흡수하여 生長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桑蠹蛸의 경우는 단지 附着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營養 成分 등이 흡착되어 알집에 있는 蟲卵에게 營養이 供給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즉 “뽕나무 樹皮의 津氣를 兼하여 득함”이라 함은 理論的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된다. 또한 《雷公炮炙論》<sup>6)</sup>에 “須桑樹東畔枝上者”라 하여 동쪽 방향까지 언급하였는데 이 내용도 과장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僞者亦以膠着桑枝之上也”의 기록을 보면 桑枝에 부착된 桑蠹蛸를 眞品으로 함에 따라 桑枝에 桑蠹蛸를 인위적으로 膠着하여 眞品을 흉내 내어 僞品을 만들어 내는 시대상황도 엿볼 수가 있으며 이는 또한 그 시대에 桑蠹蛸가 약재로서 이용이 많았으며 혼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本草衍義》<sup>11)</sup>에 “自採者眞, 市中所售者, 恐不得盡皆桑上者”라는 내용에서도 이 또한 桑蠹蛸의 僞品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었다.

표 5. 採集의 文獻 內容

文獻名	採 集	備考
1.神農本草經 <sup>2)</sup>	生桑枝上采蒸之	
2.雷公炮炙論 <sup>6)</sup>	凡采覓, 須桑樹東畔枝上者	
3.本草經集注 <sup>8)</sup>	生桑枝上, 螳螂子也, 二月, 三月採蒸之	
4.新修本草 <sup>9)</sup>	生桑枝上, 螳螂子也, 二月, 三月採蒸之	
5.開寶本草 <sup>10)</sup>	生桑枝上, 螳螂子也, 二月, 三月採蒸之	
6.本草衍義 <sup>11)</sup>	自採者眞, 市中所售者, 恐不得盡皆桑上者	
7.證類本草 <sup>12)</sup>	生桑枝上, 螳螂子也, 二月, 三月採蒸之	
8.紹興本草校注 <sup>13)</sup>	生桑枝上, 螳螂子也, 二月, 三月採蒸之	
9.本草蒙筌 <sup>15)</sup>	二, 三月中, 方可收採	
10.全國中草藥滙編 <sup>29)</sup>	一般在9月至翌年2月間均可採集	

採集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本草經集注》<sup>8)</sup> 등 9,10,11,12,13,15)에는 채집의 시기를 二月, 三月에 채집하도록 하는 기록이 있는데 채집 시기의 결정은 사마귀 알집 내부에 있는 충란 및 유충의 성장 정도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고려된 시기로 생각되었으며 이에 부화 직전 상태가 가장 효능이 좋은 桑螵蛸 일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는 곧 성충인 당랑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全國中草藥滙編》<sup>29)</sup>에는 “一般在9月至翌年2月間均可採集”라 하였는데 “弘景”의 내용에 근거하여 뽕나무의 津氣를 얻은 桑螵蛸를 채집한다고 하면 9월경부터 사마귀가 알집을 낳는 時期를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즉 9월경에 채집한 桑螵蛸는 너무 빠른 採集 관계로 뽕나무의 津氣의 내용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과 같이 채집에 있어서는 뽕나무에 부착된 것을 문헌상으로는 桑螵蛸라고 하여 眞品이라 하였지만 藥效 측면을 고려할 때 附着된 장소에 따라 藥效 成分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며 부착된 장소와는 무관하게 사마귀 알집이면 桑螵

蛸로서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사마귀 알집 내부에 있는 충란 및 유충의 성장 정도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4. 修治의 內容 및 理由

修治의 방법으로 《神農本草經》<sup>2)</sup>에서 “蒸之하여 이용한다.”는 내용 이후 각 문헌에 修治의 內容 및 理由를 기록하고 있었다(표 6).

사마귀의 알집으로 형성된 桑螵蛸의 내부에는 살아있는 蟲卵이 生存하고 있어 修治하여 사용해야 하는바 《神農本草經》<sup>2)</sup> 이후 각 문헌에 기록된 修治의 內容 및 理由를 살펴보면 《本草崇原》<sup>26)</sup>에 “大如拇指, 其內重重相隔, 隔中有子, 其形如蛆卵, 至芒种節后, 一齊生出, 約有數百枚”라 하였듯이 알집 내부에는 구획된 방에 수백여 마리의 사마귀 알이 生存하고 있어서 그 사마귀 충란을 死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각 문헌의 修治의 내용으로는 《雷公炮炙論》<sup>6)</sup>에 “去核子, 用沸漿水浸淘七遍, 令水遍沸, 于

표 6. 修治의 文獻別 內容

文獻名	內 容	備考
1.神農本草經 <sup>2)</sup>	蒸之	
2.雷公炮炙論 <sup>6)</sup>	去核子, 用沸漿水浸淘七遍, 令水遍沸, 于瓷鍋中熬令干用. 勿亂別修事, 却无效也.	
3.本草經集注 <sup>8)</sup>	採蒸之, 當火炙, 不爾令人洩	
4.新修本草 <sup>9)</sup>	採蒸之, 當火炙, 不爾令人洩	
5.開寶本草 <sup>10)</sup>	採蒸之, 當火炙, 不爾令人洩	
6.證類本草 <sup>12)</sup>	採蒸之, 當火炙, 不爾令人洩	
7.紹興本草校注 <sup>13)</sup>	採蒸之, 當火炙, 不爾令人洩	
8.本草蒙筌 <sup>15)</sup>	曝乾復炙, 當中破開炙之. 免泄大腸	
9.本草備要 <sup>20)</sup>	炙黃惑醋煮湯泡煨用	
10.本經逢原 <sup>21)</sup>	火炙黃用	
11.本草從新 <sup>24)</sup>	炙黃惑醋煮湯泡煨用	
12.得配本草 <sup>25)</sup>	熱漿浸一夜, 炙黃用	
13.本草崇原 <sup>26)</sup>	大如拇指, 其內重重相隔, 隔中有子, 其形如蛆卵, 至芒种節后一齊生出, 約有數百枚	
14.本草求真 <sup>27)</sup>	酒炒用	
15.用藥珍珠囊 <sup>32)</sup>	炒黃色, 不你令人泄瀉	
16.中國藥材學 <sup>34)</sup>	蒸至蟲卵死後晒干或烘干	

瓷鍋中熬令干用. 勿亂別修事, 却无效也”라 하였으며 《本草經集注》<sup>8)</sup>, 《新修本草》<sup>9)</sup>, 《開寶本草》<sup>10)</sup>, 《紹興本草校注》<sup>13)</sup>에서 “採蒸之, 當火炙”라 하였고, 《本草原始》<sup>18)</sup>에 “蒸過, 火炙用”, 《本草備要》<sup>20)</sup>에 “火炙黃用”, 《本草從新》<sup>24)</sup>에 “炙黃惑醋煮湯泡煨用”라 기록하였다.

修治의 방법으로 《雷公炮炙論》<sup>6)</sup>에서는 “沸漿水에 浸하여 냄비에 七回淘한 다음 熬하여 쓴다”하여 이외의 방법은 효과가 없다 하였는데 이 또한 泄瀉를 방지해야지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생각되었고, 《本草求真》<sup>27)</sup>에는 酒炒用이라 하여 酒을 사용하여 修治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修治의 방법은 蒸, 熬, 炙, 火炙, 酒炒 등의 방법이 주 내용 이었으며 이렇게 修治를 시행하는 이유를 “不爾令人洩”라 하여 泄瀉를 방지하기 위함 이었다.

이와 같이 桑螵蛸의 修治는 文獻을 통해 살펴본 결과 桑螵蛸 내부에 있는 蟲卵을 사멸하여 이용하기 위해 단독적 또는 복합적인 方法으로 修治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藥效의 增大, 부화 방지 등의 內容이 있었으나 특히 가장 주된 修治의 이유는 泄瀉를 방지하는 이유가 가장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인 藥名, 異名, 採集, 修治 등을 종합하여 볼 때 桑螵蛸는 《神農本草經》<sup>2)</sup>에 桑螵蛸라 기재된 이후 《吳普本草》<sup>3)</sup>에서는 桑蛸條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桑螵蛸로 불리어졌으며 또한 異名에 있어서도 《神農本草經》<sup>2)</sup>에 蝕臄라는 異名 이후 螳螂子, 螳螂卵, 螵蛸, 螵蛸 등의 異名을 갖고 있었고 桑螵蛸는 살아있는 사마귀의 蟲卵인 점을 고려하여 採集, 泄瀉 방지하기 위한 修治 등에 있어서 특이성을 알 수 있었다.

藥名인 桑螵蛸의 讀音에 있어서 “蛸”에 대한 讀音은 “소”와 “초”의 두 가지 音으로 혼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桑枝에 부착된 桑螵蛸가 진기를 흡착한다 하여 眞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일

반적인 寄生植物의 생태와 비교해 볼 때 桑螵蛸의 경우는 단지 附着의 의미로만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타 장소에 부착된 桑螵蛸도 약재로서 이용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讀音에 대한 검토, 桑枝에 부착된 桑螵蛸와 타 장소에 부착된 桑螵蛸의 成分 차이 여부, 蟲란 및 유충의 生長 정도에 따른 차이, 사마귀의 종류에 따른 桑螵蛸의 형태 등의 성분 분석은 연구하여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I. 結 論

사마귀과(螳螂科)에 속한 곤충인 사마귀의 알집인 桑螵蛸의 藥名, 異名, 採集, 修治 등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을 얻었다.

1. 桑螵蛸는 藥名으로 《神農本草經》에는 桑螵蛸 《吳普本草》에는 桑蛸條로 기재된 藥名이 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桑螵蛸라는 藥名으로 사용하고 있다.

2. 桑螵蛸는 《神農本草經》에 蝕臄라는 異名 이후 사마귀 蟲卵의 의미로 螳螂子, 螳螂卵 그리고 사마귀 알집을 표현하여 螳螂巢, 螳螂窩, 螳螂殼 등의 異名을 보여주고 있었다.

3. 현재 桑螵蛸의 讀音에서 “蛸”의 音을 “소”와 “초”의 두 가지 音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本草綱目》에서는 桑螵蛸의 讀音관련하여 “蛸”를 “소”가 아닌 “초”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桑螵蛸의 藥名에서 “螵”와 “蛸”의 의미는 사마귀 알 또는 알집, 蛸는 生絲를 의미하여 사마귀 알집의 형상을 의미한 藥名임을 알 수 있었고 異名은 사마귀의 食성과 주치 그리고 형상에 따른 의미를 함유한 異名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뽕나무 樹皮에 부착된 桑蠶蛸가 뽕나무의 진기를 흡수한다 해서 더 좋을 것이라는 기록은 일반적인 寄生植物의 생태와는 다르게 桑蠶蛸의 경우는 단순한 附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뽕나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6. 桑蠶蛸는 살아있는 생명체 알집으로 내부에 있는 蟲卵을 사멸하여 이용하기 위해 蒸, 炙, 火炙, 醋煮 등의 方法으로 하여 修治함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는 泄瀉를 방지하는 이유가 가장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桑蠶蛸를 살펴본 결과 藥名관련하여 이원화된 상태로 讀音하고 있었고, 採集에 있어서 문헌 내용과는 다르게 사마귀 알집의 부착장소와는 구별 없이 사마귀 알집이면 무방하게 이용하여도 되겠다는 내용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에 桑蠶蛸 讀音의 충분한 검토로 일원화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또한 사마귀 알집의 부착장소와는 무방하게 이용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관련하여 桑枝에 부착된 桑蠶蛸와 그렇지 못한 桑蠶蛸의 성분 차이, 더불어 사마귀 알집 내부의 증란 성장 정도와 사마귀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인 桑蠶蛸의 효능 차이 등 추가적인 연구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參考文獻

1. 全國韓醫科大學教授共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p.691, 1991.
2. 孫星衍·孫馮翼輯, 神農本草經, 臺北, 五洲出版社, pp.48-49, 1985.
3. 吳普著·尙志均等輯校, 吳普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2, 1987.
4.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2012-135호 (2012.12.28. 개정).
5. 김창민 등, 한약재 감별도감, 식품의약품 안

- 전처, 서울, 호미출판사, p.456, 2009.
6. 雷斅撰·王興法輯校, 雷公炮炙論,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p.44, 1991.
7. 陶弘景集·尙志均點校,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89-190, 1986.
8. 陶弘景編·尙志鈞 尙元勝 輯校, 本草經集注(輯校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30, 1994.
9. 蘇敬撰·尙志均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p.404, 1981.
10. 尙志鈞輯校, 開寶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pp.339-340, 1998.
11. 寇宗奭, 本草衍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15, 1990.
12. 唐慎微, 證類本草, 北京, 華夏出版社, pp.495-496, 1993.
13. 王繼先等撰·尙志鈞 校注, 紹興本草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467-468, 2007.
14. 劉文泰 等勅撰, 本草品彙精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86, 1982.
15. 陳嘉謨撰·王淑民等點校,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18, 1988.
16.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216, 1984.
17. 李時珍, 圖解本草綱目(下冊),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p.1274-1275, 1982.
18. 李中立撰, 本草原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506, 2007.
19. 張介賓撰, 本草正, 歷代本草精華叢書(第二冊),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p.949, 1992.
20. 汪昂, 增補本草備要, 서울, 高文社, pp.227-228, 1974.
21. 張璐, 本經逢原, 上海, 錦章書局, pp.218-219, 1695.
22. 朱東樵, 本草詩箋, 臺北, 旋風出版社, p.174, 1974.
23. 黃元御, 玉楸藥解, 太原, 山西出版集團, pp.371-372, 2009.



24. 吳儀洛, 增註本草從新,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265, 1984.
25. 嚴西亭, 得配本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195, 1958.
26. 張志聰,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56, 1992.
27. 黃宮繡, 本草求真, 臺北, 宏業書局有限公司, pp.41-42, 1981.
28. 姚瀾, 本草分經,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146, 1989.
29. 《全國中草藥彙編》編寫組編, 全國中草藥彙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80, 1993.
30. 焦樹德, 用藥心得十講,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21-122, 1977.
31. 沈金鰲, 中醫要藥分類, 臺北, 自由出版社印行, pp.129-130, 1985.
32. 李杲, 用藥珍珠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152, 1993.
33. 曲京峰·張少華主編, 中藥學, 北京, 科學出版社, p.358, 1994.
34. 徐國鈞, 中國藥材學(下),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1784-1786, 1996.
35. 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9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56-158, 1999.
36. 한의학 대사전 편찬위원회, 韓醫學大辭典, 서울, 도서출판 정담, pp.769-770, 2010.